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계약 종료 전 고객 사망 시 자동차 임대 계약에 대한 조기 해약금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Cuomo 주지사: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고인의 자동차 임대 계약 조기 해약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꼴입니다. TV, 인터넷, 휴대 전화 업체는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법으로 자동차 임대에도 적용해 고인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친척을 해약금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계약 종료 전 고객 사망 시 자동차 임대 계약에 대한 조기 해약금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S.4019A/A.2078)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고객이 사망하여 계약이 깨지는 경우 전화, TV, 인터넷, 에너지, 상수도 서비스업체에서 조기 해약금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비슷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조기 해약금 청구 금지 범위를 자동차 임대 계약까지 확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고인의 자동차 임대 계약 조기 해약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꼴입니다. TV, 인터넷, 휴대 전화 업체는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법으로 자동차 임대에도 적용해 고인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친척을 해약금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Kevin Thomas 뉴욕주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뉴욕 주민은 고인의 임대 차량에 대한 조기 해약금을 지불하는 봉변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이 법안은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부담을 남은 가족이 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고 소비자 및 가족을 보호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ileen Gunther 뉴욕주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꼭 필요한 소비자 보호책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뉴욕 주민 가족을 위해 올바른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 계약에 대한 조기 해약금 지불 부담까지 주는 것은 특히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어떤 가족도 이러한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